

도시의 쇠퇴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도시 규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

권오규** · 강은택*** · 마강래****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Urban Declin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O-Kyu Kwon**, Eun-Taek Kang***, Kang-Rae Ma****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도시쇠퇴가 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도시들을 규모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도시규모별 쇠퇴정도에 따른 전반적 생활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시쇠퇴의 진행과 삶의 만족감 변화의 동태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부문별 삶의 만족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감은 감소하나, 과밀 해소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감소로 전반적 생활만족감은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소도시 주민의 경우에는 도시의 쇠퇴가 전반적 삶의 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 주거환경만족감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도시쇠퇴, 주관적 삶의 만족감, 패널데이터 분석, 고정효과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urban decline on Subjective Well-being(SWB).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city, the municipal districts of Korea are classified into metropolitan cities, middle cities, and small cities. The SWB in the growth area, the maintenance area, and the declining area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lative decline of each city group was examined. In addition, in order to consider the complex nature of urban decline, SWB was divided into overall life satisfaction,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and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Panel models were also used to identify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 of urban decay and the change in SWB.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ecline on the SWB for the local resid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urban decline on the SWB of the resident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ity where the individual resides, according to the SWB by the division. In the case of metropolitan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주저자: kwon0759@gmail.com)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저자: kangeuntaek@hanmail.net)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kma@cau.ac.kr)

inhabitants, the decline of the hous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due to deterior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decline of the city, bu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increased due to the decrease of the social costs such as congestion in an overcrowded area.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of the small cities, it is confirmed that the decline of the city reduces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and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Key Words: Urban Decline, Subjective Well-being(SWB),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2015)¹⁾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약 64.2%에 달하는 지역에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쇠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쇠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49개 지역 중 34개 지역에서 도시쇠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상 시 또는 구 지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도시쇠퇴현상은 지방도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시쇠퇴의 원인으로는 도시의 자연적 노후화,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 고용기반의 이전, 교외화, 공공정책과 규제, 교통망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 경쟁력 변화 등의 요인이 꼽히고 있다(김광중, 2010). 또한, 세계화로 인한 도시외부여건의 변화는 선진국 도시들의 공통적인 쇠퇴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이끌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성장세의 감소와 세계화로 인해 탈도시화와 탈산업화가 나타났다. 변화된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 경제여건의 변화는 일자리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의 유출은 도시의 쇠퇴로 이어졌다(서준교, 2014).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형성 초기부터의 부실개발, 환경수준의 상대적 낙후,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이동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김광중, 2010).

도시쇠퇴는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도시재생사업단, 2010). 물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주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의 하락,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감소, 세수입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 인구 규모 및 증가율 감소 등이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송상열·장희순, 2007).

도시쇠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핵심 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쇠퇴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지역인구의 유출을 불러온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상품 및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켜 생활의 편리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공실 증가는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하락과 실업자 증가를 불러온다. 쇠퇴로 인한 도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도시쇠퇴에 관한 논의는 쇠퇴의 원인과 양상을 정리하고, 쇠퇴정도를 진단하여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여 왔다.

지역의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집계한 삶의 질 수준과 지역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swald & Wu,

2010).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물리환경 시설 등의 수준이 양호한 지역과 양호하지 못한 지역 간 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쇠퇴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는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도시 쇠퇴와 주민의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쇠퇴한 지역 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이 쇠퇴하지 않은 지역 주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들어 쇠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삶의 만족감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Delken, 2008; Glaeser & Redlick, 2009; Hollander, 2010; Lucas, 2013; Glaeser et al., 2014). 그러나 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삶의 만족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은 단순한 지역지표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 주민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과 재생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사용자료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쇠퇴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연구의 범위를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내용적 범위는 도시쇠퇴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도시쇠퇴의 양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쇠퇴와 주관적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정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및 지역연구에서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도시쇠퇴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구축된 지역별 통계자료의 사

용이 필요하다. 전국단위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통계는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단위의 경우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을 포함하는 반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도시 내 일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공간적 범위는 도시쇠퇴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쇠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 전·후를 시작으로 하여 자료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까지의 기간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더 세부적으로는 주로 사용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의 1~17차 조사시점인 1998년에서 2014년까지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전국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이용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관측대상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추적하는 자료를 이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자료이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형태의 자료가 적절하다.

최근 들어 다양한 패널자료가 그 목적에 맞게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자료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 및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지역 환경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삶의 질(Quality of Life) 연구와 주관적 삶의 만족감(Subjective Well-Being)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Ballas, 2013).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지역의 물리적 시설 및 사회 경제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하는 반면, 주관적 삶의 만족감과 관련된 논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에서 측정되는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량화된 객관적 지역지표를 이용한 지역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평가를 넘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Subjective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지역의 일반 환경)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관적 삶의 만족감(SWB)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된다. 설문 응답의 구성은 서열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통해 측정한다. Likert(1932)가 고안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리커트 척도는 심리검사 응답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척도로, 다루기가 용이하고 개인의 태도나 가치 평가에 유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설문에 따라 응답의 구성은 대체로 (1) 매우 부정, (2) 부정, (3) 보통, (4) 긍정, (5) 매우 긍정의 5점 척도로 구성²⁾된다. Diener et al.(1985)와 Thurstone(1955)는 7점 또는 11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쇠퇴와 삶의 만족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시 환경이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swald & Wu(2010)에 의하면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은 주민의 삶의 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이 양호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감은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균 · 김동규, 2007; Delken, 2008; Glaeser & Redlick, 2009; 임근식, 2012 등). 또한,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감이 쇠퇴하지 않은 지역 주민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도시 내에서 낙후지역과 개발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감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이영균 · 김동규, 2007) 거주지의 쇠퇴에 따른 생활환경의 낙후 또는 변화가 삶의 만족감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쇠퇴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지역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임근식, 2012), 도시공원,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만족감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이영균 · 김동규, 2007), 도시쇠퇴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Glaeser and Gyoruko(2005)은 도시의 쇠퇴로 인한 부동산수요의 하락은 도시민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켜 도시의 세수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규모 축소 및 질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Glaeser & Redlick(2009)에 따르면 미국 35개 대도시의 인구증감과 지역의 행복한(-전반적 삶의 만족감이 높은) 사람의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52)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aeser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1950년에서 2000년까지의 인구증감이 전체 지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Hollander(2011)는 쇠퇴도시와 쇠퇴하지 않은 도시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비교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가 주민 삶의 만족감 변화와 크게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38개 지역 중심도시의 인구증감을 바탕으로 성장도시와 쇠퇴도시 주민의 행복³⁾ 비교한 결과 성장하는 도시의 주민의 만족감은 쇠퇴하는 도시의 주민만족감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만

족감을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만족감의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고, Hollander는 도시의 성장이 혼잡을 증가시켜 통행시간 등 사회적비용의 추가발생을 유발하고 주민의 행복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독일의 439개 구역을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유지도시(Stable Cities), 성장도시(Growing Cities)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민의 전반적인 행복을 확인한 Delken(2008)의 연구에서는 축소도시 주민의 전반적 행복이 유지도시나 성장도시 주민에 비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축소도시 주민의 경우 개인경제상황, 범죄, 직업안정성에 대한 생활고려 요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규모 축소에 대하여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문별 삶의 만족감이 전반적 삶의 만족감과는 달리 쇠퇴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도시쇠퇴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만족감의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만족감의 차이 확인의 과정에서 공간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Delken, 2008; Lucas, 2013; Glaeser et al., 2014). 공간적 비교단위를 Kreise⁴⁾ 또는 County 별로 비교를 진행함으로써 대도시에서의 쇠퇴와 중소도시에서의 쇠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는 쇠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Lucas, 2013; Glaeser & redlick, 2009; Glaeser et al., 2014).⁵⁾

도시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쇠퇴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른 쇠퇴의 공간적 특성과 다양한 삶의 만족감의 고려, 도시쇠퇴의 진행과 주민의 삶의 만족감의 변화에 대한 동태적 변화관계 규명 등의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쇠퇴의 진행이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도시규모별로 주민의 부문별 삶의 만족감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3. 도시쇠퇴와 주민의 삶의 만족감

본 절에서는 도시규모별 쇠퇴정도에 따른 주민의 평균 만족감의 차이와 변화경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와 소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 간 쇠퇴정도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쇠퇴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별 만족감(전반적인 생활 만족감, 가족의 수입 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의 변화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도시쇠퇴는 인구증감 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수요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충북개발연구원, 2010). 즉, 도시의 매력저하는 유입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도시쇠퇴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지역의 인구감소는 도시쇠퇴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쇠퇴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증감지표의 대표성에 주목하여 인구증감을 도시쇠퇴 정도를 나타내 주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Delken, 2008; Glaeser&Redlick, 2009; Hollander, 2011; Lucas, 2013; Glaeser, 2014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쇠퇴 진단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성장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쇠퇴하는 지역으로 적용하였다.

1) 전반적 생활 만족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

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1) ‘매우 만족스럽다’부터, (5)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코딩하여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5점,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1점을 부여하였다.

1999년 2차 조사부터 2014년 17차 조사까지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상승해왔다. 분석 기간 동안 전반적 삶의 만족감 전체 평균은 2.95에서 3.41로 0.46 상승하였다. 도시규모별 전반적 생활 만족감은 중도시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와 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1999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대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들 중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도시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쇠퇴가 진행 된 이후인 2014년의 지역 쇠퇴 정도별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을 살펴보면, 유지 지역 및 쇠퇴지역에 속한 도시 주민의 경우 성장지역 주민에 비하여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 주민의 경우 전반적 생활 만족감은 유지지역과 쇠퇴지역 주민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된 도시의 주민의 경우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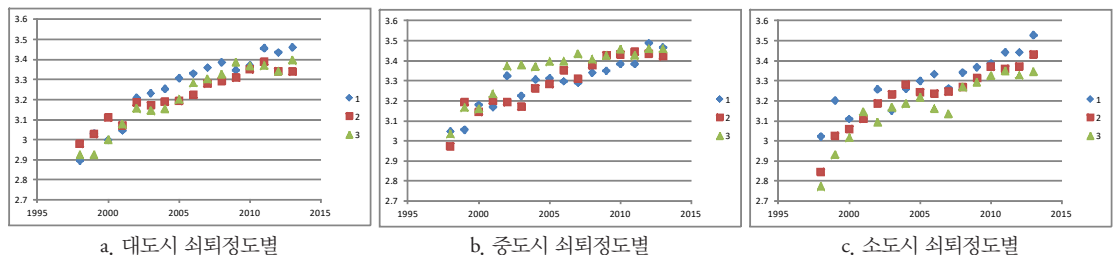
2) 가족의 수입 만족감

도시쇠퇴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반 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의 감소, 커뮤니티 해체 등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 도시 쇠퇴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각각에 상응하는 만족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도시쇠퇴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 상태 변화에 따라 경제적 측면의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퇴정도와 가족의 수입 만족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 동안 전체 가족의 수입만족감은 높아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규모별 쇠퇴정도의 가족의 수입만족감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들의 상대적 쇠퇴정도별 가족의 수입만족감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성장지역에 도시 주민의 가족의 수입만족감은 다른 도시 주민의 가족의 수입 만족감보다 높지 않으며, 쇠퇴지역 도

〈표 1〉 도시규모별 전반적 생활만족감

도시 규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2.95	3.05	3.09	3.11	3.21	3.20	3.24	3.26	3.29	3.30	3.33	3.35	3.38	3.40	3.39	3.41
대도시	2.95	3.00	3.06	3.07	3.18	3.18	3.19	3.22	3.26	3.30	3.32	3.34	3.36	3.40	3.36	3.38
중도시	3.01	3.16	3.16	3.21	3.28	3.25	3.31	3.33	3.35	3.35	3.38	3.41	3.43	3.42	3.46	3.44
소도시	2.86	3.04	3.06	3.12	3.18	3.20	3.26	3.25	3.24	3.23	3.28	3.32	3.36	3.38	3.38	3.43



a. 대도시 쇠퇴정도별

b. 중도시 쇠퇴정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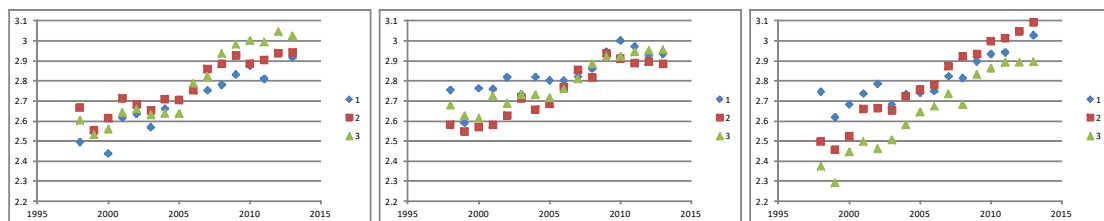
c. 소도시 쇠퇴정도별

* X: 시점, Y: 만족감, 범례 1: 분석기간 동안 성장, 2: 분석기간 동안 유지, 3: 분석기간 동안 쇠퇴

〈그림 1〉 전반적 생활 만족감 변화

〈표 2〉 도시규모별 가족의 수입 만족감

도시 규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2.61	2.54	2.58	2.67	2.67	2.66	2.70	2.71	2.77	2.83	2.86	2.92	2.93	2.93	2.96	2.96
대도시	2.62	2.55	2.57	2.67	2.67	2.63	2.68	2.69	2.77	2.83	2.88	2.92	2.91	2.91	2.97	2.96
중도시	2.64	2.58	2.62	2.66	2.69	2.72	2.72	2.72	2.77	2.83	2.85	2.93	2.94	2.93	2.92	2.92
소도시	2.51	2.45	2.53	2.64	2.64	2.63	2.70	2.73	2.75	2.83	2.83	2.90	2.95	2.97	3.01	3.03



a. 대도시 쇠퇴정도별

b. 중도시 쇠퇴정도별

c. 소도시 쇠퇴정도별

* X: 시점, Y: 만족감, 범례 1: 분석기간 동안 성장, 2: 분석기간 동안 유지, 3: 분석기간 동안 쇠퇴

〈그림 2〉 가족의 수입 만족감 변화

시 주민의 가족의 수입만족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 내의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약화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들의 상대적 쇠퇴정도별 가족의 수입만족감 변화를 살펴보면, 쇠퇴지역 도시 주민의 가족의 수입 만족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3) 주거환경 만족감

도시규모별 주거환경 만족감을 살펴보면, 중도시로 분류되는 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감이 가장 높으며, 소도시, 대도시의 순서로 주거환경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의 주거환경

만족감의 증가폭은 대도시로 분류된 도시 주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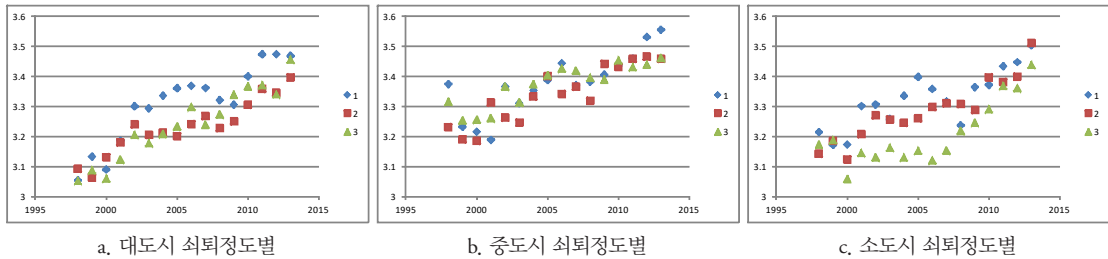
대도시로 분류된 도시들 중에서 상대적 쇠퇴정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감의 변화의 관계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의 상대적 쇠퇴정도별 주거환경 만족감은 대도시 집단의 변화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쇠퇴지역 도시 주민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감이 하락하였다가 소도시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규모별로 분류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각각의 도시 주민의 부문별 삶의

〈표 3〉 도시규모별 주거환경 만족감

도시 규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3.15	3.14	3.14	3.20	3.27	3.24	3.27	3.29	3.32	3.31	3.29	3.33	3.38	3.41	3.41	3.46
대도시	3.08	3.08	3.11	3.17	3.24	3.22	3.24	3.24	3.28	3.28	3.26	3.29	3.34	3.39	3.37	3.43
중도시	3.28	3.22	3.22	3.27	3.32	3.28	3.35	3.40	3.39	3.38	3.36	3.42	3.44	3.45	3.48	3.48
소도시	3.16	3.18	3.12	3.21	3.25	3.24	3.24	3.27	3.27	3.28	3.27	3.29	3.36	3.39	3.40	3.49



a. 대도시 쇠퇴정도별

b. 중도시 쇠퇴정도별

c. 소도시 쇠퇴정도별

* X: 시점, Y: 만족감, 범례 1: 분석기간 동안 성장, 2: 분석기간 동안 유지, 3: 분석기간 동안 쇠퇴

〈그림 3〉 주거환경 만족감 변화

만족감은 도시의 쇠퇴도에 따라 변화 경향이 다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규모별로 통계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쇠퇴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4. 도시의 쇠퇴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1) 주요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전반적 삶의 만족감, 가족의 수입 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 문항을 바탕으로 변수화하였다. 독립변수는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였다.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혼인 상태, 고용상태, 종교유무, 맞벌이 여부, 점유형태, 자녀 수, 이사 여부, 가구동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쇠퇴도(전년대비 인구변화율)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쇠퇴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수입에 대한 만족감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현승, 1999).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조명한 등, 1994). 연구자의 관점과 자료에 따라 성별에 따른 만족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iener et al., 1999).

연령은 삶의 만족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혼을 포함한 생애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왕배, 1995).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나, 선형이 아닌 U자 형태로 나타난다(Oswald, 1997; Blanchflower & Oswald, 2004).

교육기간이 길수록 소득 및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높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준 외, 201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고소득 및 계층상승의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현승, 1999).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감과 상관관계 높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기간이 길수록 실업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 더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Clark & Oswald, 1994).

결혼적령기에 삶의 만족감이 높으나, 결혼 이후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Frey, 2008; Lucas, 2013; 이현승, 2004). 실업자의 경우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만족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현승, 1999). 경제활동상태 중 실업 상태에 속한 집단은 취업집단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낮은 삶의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이현승(1999)에 의하

〈표 4〉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코딩	비고
종속변수		전반적 삶의 만족감 (리커트척도 5점) 가족의 수입 만족감 (리커트척도 5점) 주거환경 만족감 (리커트척도 5점)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개인 관측 특성	성별	0: 여자 / 1: 남자	
	연령	1: 20대 이하 (ref)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이상	
	교육 받은 기간	연속변수 (0 - 20년)	'무학 ~ 대학원' 학력을 교육 년 수로 변환
	고용상태	1: 미취업 (ref) / 2: 정규직 / 3: 시간제	
	맞벌이 여부	0: 외벌이 / 1: 맞벌이	
	혼인상태	1: 미혼 / 2: 기혼 (ref) / 3: 별거/이혼 / 4: 사별	
	종교 유무	0: 종교없음 / 1: 종교있음	
	점유형태	1: 자가 (ref) / 2: 차가 / 3: 기타	
	이사 여부	0: 이사안함 / 1: 이사함	
가구소득	연속변수		
도시쇠퇴정도		연속변수	전년 대비 인구변화율

*(ref) 참조 변수

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임금노동자 집단이 자영업자 집단에 비하여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관리직이나 사무직 집단이 서비스 판매직이나 생산직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생활 만족감을 보이고 있어 직업의 유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로 인한 소득증가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의 사회참여는 사회활동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높은 삶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Diener et al.(1999: 189)의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종교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의 삶의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만족감에 있어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안정성 확보와 삶의 만족감 차이에 관한 논의는 점유형태에 따른 만족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자가 점유자의 삶의 만족감은 차가 점유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거주지의 이동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대체로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소득은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준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감도 같이 높아지지만,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삶의 만족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석동, 2016).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은 가구동등화 소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가구동등화 소득을 사용함으로써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가구원의 수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소득의 효용을 측정⁶⁾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패널자료 관측치의 오차항 u_i 를 패널 관측치 별로 다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는 모형이다. 즉 패널 관측치 간 절편은 다를 수 있지만, 각 개체의 절편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정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패널자료가 가지고 있는 관측치 사이의 다른 특성(between)과 관측치 내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within)에서 관측치 간 차이(between)를 제외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모형에 사용되는 각 변수의 값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값을 제함으로써 within effects를 추정할 수 있다. 식 (1)에서 식 (2)를 빼주면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text{식 (1)}$$

$$\bar{y}_i = \alpha + \beta \bar{x}_i + u_i + \bar{e}_i \quad \text{식 (2)}$$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e_{it} - \bar{e}_i) \quad \text{식 (3)}$$

식 (3)에서는 오차항 u_i 가 제거됨으로써 $cov(x_{it}, u_i) \neq 0$ 이더라도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누락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오차항에 대해서 개별 관측치 간에는 다르나 시간변동이 없는 변수(관찰되지 않는 지역특성효과), 시간변화에 따라 변동하나 개별 관측치 간에 차이가 없는 변수(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 개별 관측치 간에도 차이가 있고 시간

변화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변수(확률적 교란항)로 구분하여 다룬다. 이때, 시간불변의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으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고, 관련이 없을 때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한다.⁷⁾

2) 분석 결과

(1) 전반적 생활 만족감

한국노동패널(KLIPS) 2~17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을 사용하여 도시퇴거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고려된 각각의 독립변수가 전반적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로 정리하였다.

전체 도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표 5> 도시규모별, 도시쇠퇴정도에 따른 전반적 생활 만족감

Variables		전체 (n=198,848)	대도시 (n=100,695)	중도시 (n=58,017)	소도시 (n=40,092)
도시쇠퇴정도		0.001187	0.002009*	0.005795***	-0.00644***
연령 (ref=30대 미만)	30대	-0.03185***	-0.05493***	-0.00189	-0.00863
	40대	-0.04869***	-0.08202***	0.003934	-0.03029
	50대	0.001055	-0.0325	0.042646	0.033381
	60대 이상	0.071554***	0.028974	0.12541***	0.112214***
교육받은 기간		-0.00318*	-0.00366	-0.00113	-0.00392
고용상태 (ref=미취업)	정규직	0.079926***	0.087279***	0.059775***	0.089503***
	시간제	0.024958***	0.025972***	0.013106	0.039785***
맞벌이 여부		0.0162***	0.015795**	0.017484**	0.018449*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0.18718***	-0.2265***	-0.15658***	-0.11684***
	별거/이혼	-0.16598***	-0.14978***	-0.18243***	-0.18865***
	사별	0.009713	-0.02286	0.007724	0.055405**
점유형태 (ref=자가)	차가	-0.07238***	-0.08057***	-0.06022***	-0.06355***
	기타	-0.07709***	-0.06417***	-0.07366***	-0.09952***
이사 여부		0.040798***	0.049416***	0.03305***	0.029514***
가구소득		0.103289***	0.1074***	0.091021***	0.10983***
시간대미 (ref=1999년)		2000-2014년			
R-Square		0.473312	0.475676	0.467692	0.469036

*** p<0.01, ** p<0.05, * p<0.1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30대 집단과 40대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60대 이상 집단의 경우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전반적 생활 만족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미취업 상태에 비하여 정규직 집단과 시간제 근로자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맞벌이 집단의 경우 외벌이 집단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난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하여 미혼집단과 별거/이혼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집단에 비하여 차가 집단과 기타점유형태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대도시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30대 집단과 40대 집단의 만족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받은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의 경우 미취업집단에 비하여 정규직 집단과 시간제 종사자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높았으며, 맞벌이 집단의 생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혼인상태와 점유형태, 이사여부,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도시 주민의 경우 대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대도시와 달리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60대 이상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상태의 경우 미취업집단에 비하여 정규직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벌이 여부, 혼인 상태, 점유형태, 이사 여부, 가구소득 등의 변수는 대도시 주민의 경우와 계수 값의 부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도시 주민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중도시 주민과는

달리 도시의 쇠퇴가 지역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중도시 주민과 같이 30대 미만집단에 비하여 60대 이상 집단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와 맞벌이 여부, 점유형태, 이사 여부,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와 중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도시의 쇠퇴가 지역의 혼잡을 감소시켜 교통정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쾌적해진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Hollander, 2010).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교외화가 인구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쇠퇴가 진행될 때 전반적 생활 만족감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시의 규모에 따라 쇠퇴가 주민의 전반적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의 수입 만족감

가족의 수입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민의 가족의 수입만족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도시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정도와 가족의 수입만족감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소도시의 경우 쇠퇴가 진행될 때 가족의 수입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와 직장지가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거주하는 지역의 쇠퇴로 인한 소득만족감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쇠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는 소도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있어 가족의 수입만족감 부분에서도 도시규모별 쇠퇴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30대, 40대, 50대 집단의 가족의 수입만족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와 소도시에서도

〈표 6〉 도시규모별, 도시쇠퇴정도에 따른 가족의 수입 만족감

Variables		전체 (n=198,848)	대도시 (n=100,695)	중도시 (n=58,017)	소도시 (n=40,092)
도시쇠퇴 정도		-0.00222**	0.002574	-0.00207	-0.00707***
연령 (ref=30대 미만)	30대	-0.06563***	-0.06124***	-0.05071***	-0.08453***
	40대	-0.10109***	-0.10118***	-0.06474***	-0.12821***
	50대	-0.05313***	-0.05465**	-0.01158	-0.06872*
	60대 이상	0.016539	0.009613	0.091236***	-0.02061
교육받은 기간		-0.02686***	-0.02266***	-0.03556***	-0.0233***
고용상태 (ref=미취업)	정규직	0.127452***	0.131701***	0.112841***	0.135279***
	시간제	0.031791***	0.033831***	0.022384**	0.043029***
맞벌이 여부		0.058249***	0.080218***	0.028881***	0.051606***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0.06087***	-0.05814***	-0.07678***	-0.02636
	별거/이혼	-0.03678	-0.00807	-0.07927**	-0.04343
	사별	0.096168***	0.091712***	0.046537	0.118591***
점유형태 (ref=자가)	차가	-0.06745***	-0.07869***	-0.06003***	-0.04225***
	기타	-0.04422***	-0.03357**	-0.06213***	-0.04316**
이사 여부		0.028873***	0.036981***	0.026308***	0.003045
가구소득		0.204248***	0.212809***	0.198418***	0.185779***
시간더미(ref=1999년)		2000-2014년			
R-Square		0.525988	0.528444	0.526687	0.52388

*** p<0.01, ** p<0.05, * p<0.1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시의 경우에는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30대 집단과 40대 집단의 가족의 수입만족도가 낮으나, 60대 집단의 경우에는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가족의 수입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상태 별로는 미취업 집단에 비하여 정규직 집단과 시간제 집단의 가족의 수입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혼인상태, 점유형태, 이사 여부, 가구소득 등 변수의 계수 값의 방향은 기존의 만족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3) 주거환경 만족감

물리적 쇠퇴는 도시기반시설, 주택 및 건축물의 노후화를 불러온다. 주거환경 만족감의 경우 쇠퇴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소도시의 경우에는 높은 노후주택비율과 낮은 신규주택비율, 지자체의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 재

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쇠퇴의 진행으로 인한 만족감의 저하가 더욱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임근식, 2012).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30대 미만 집단에 비하여 50대 집단과 60대 집단의 만족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받은 기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상태 변수는 미취업 집단에 비하여 정규직 집단에 속할 때 주거환경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집단의 경우 외벌이 집단에 비하여 만족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혼집단은 미혼집단과 별거/이혼 집단에 비하여 주거환경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가점유집단은 차가점유 집단과 기타집단에 비하여 주거환경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주거환경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상태와 맞벌이여부, 혼인상태, 점유형태, 이사 여부,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감에 미

〈표 7〉 도시규모별, 도시쇠퇴정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감

Variables		전체(n=198,848)	대도시(n=100,695)	중도시(n=58,017)	소도시(n=40,092)
도시쇠퇴정도		-0.0012	-0.00271**	0.002041	-0.00269*
연령(ref=30대 미만)	30대	0.002933	-0.02077	0.005208	0.062469***
	40대	0.018292	0.001747	0.006987	0.086483***
	50대	0.059423***	0.038448*	0.041453	0.142576***
	60대 이상	0.084678***	0.062169*	0.059322	0.182064***
교육받은 기간		-0.00209	-0.004	-0.0056	0.00927*
고용상태 (ref=미취업)	정규직	0.038783***	0.037679***	0.027688**	0.060035***
	시간제	0.001959	-0.00555	0.003547	0.020033
맞벌이 여부		-0.0109**	-0.00728	-0.01144	-0.01509
혼인상태(ref=기혼)	미혼	-0.1754***	-0.2132***	-0.16989***	-0.0788***
	별거/이혼	-0.16315***	-0.1515***	-0.13903***	-0.22173***
	사별	-0.00315	-0.03897*	-0.01412	0.059829**
점유형태(ref=자가)	차가	-0.18912***	-0.21343***	-0.17716***	-0.12939***
	기타	-0.16036***	-0.16426***	-0.18331***	-0.12402***
이사 여부		0.110905***	0.124058***	0.094751***	0.099494***
가구소득		0.072365***	0.076448***	0.062944***	0.072634***
시간더미(ref=1999년)		2000-2014년			
R-Square		0.453625	0.461244	0.457702	0.416331

*** p<0.01, ** p<0.05, * p<0.1

치는 영향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도시 주민의 경우에는 도시쇠퇴정도가 심화될수록 주거환경 만족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쇠퇴정도가 심화될수록 주거환경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경우에는 쇠퇴가 진행되면서 노후주택 비율 증가로 인하여 주거환경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추출한 전반적 생활 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 세 부분의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쇠퇴정도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도시쇠퇴가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따라, 부문별 삶의 만족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도시쇠퇴정도가 전반적 생활 만족감과 주거환경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수입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도시규모(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에 따라서 도시쇠퇴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양상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주거환경 만족감은 감소하지만, 전반적 생활 만족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로 인한 주택 및 건축물,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주거환경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쇠퇴발생이 전반적 삶의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현상은 과밀한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인한 혼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효과가 의심된다(Hol-

〈표 8〉 도시규모별 쇠퇴진행이 부문별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반적 삶의 만족감	가족의 수입 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
전체	통계적 유의도 X	감소	통계적 유의도 X
대도시	증가	통계적 유의도 X	감소
중도시(30만 이상)	증가	통계적 유의도 X	통계적 유의도 X
소도시(30만 미만)	감소	감소	감소

lander, 2010).

다음으로, 중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전반적 삶의 만족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수입 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인한 효과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도시쇠퇴가 진행될 때 전반적 삶의 만족감, 가족의 수입 만족감, 주거환경 만족감 모든 부분에서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의 대도시, 중도시와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부터 도시규모가 작은 소도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쇠퇴가 거주 주민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대도시 또는 중도시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쇠퇴는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연구는 쇠퇴와 만족감 간의 동태적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도시규모를 구분하여 다양한 부문의 만족감을 고려함으로써, 쇠퇴현상이 지역의 특성과 만족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인구 30만 미만의 소도시 집단에 속한 도시 주민의 경우에는 도시쇠퇴의 진행이 전반적 생활 만족감, 가족의 수입만족감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인구규모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의 경우 도시의 쇠퇴는 도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 다양한 부문의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쇠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방소도시 지역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

- 1) www.city.go.kr
- 2) 응답자의 성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3) 보통' 항목을 제외하여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3) 이웃에 대한 만족(Opinion of Neighborhood Quality)을 삶의 만족감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 4) 독일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상 시군구 급에 해당한다.
- 5) Delken(2008)의 경우 전반적 삶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직업, 가구주의 수입,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대중교통, 주변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쇠퇴지역과 성장지역 주민의 만족감을 비교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쇠퇴의 진행과 도시규모에 따른 쇠퇴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6) $W=D/S^E$ W: 가구의 경제적 후생, D: 가처분소득, S: 가구원 수, E: 비교적 탄력성(0.5) (Atkinson et al., 1995; 정운희·김의준, 2001).
- 7)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광중, 2010, 한국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p.43-58.
- 김왕배, 1995, 한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도시재생사업단, 2010, 한국 도시쇠퇴의 실태 및 유형화, 도시재생사업단
- 서준교, 2014, 도시쇠퇴와 수축의 원인과 대응전략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97-115.
- 송상열·장희순, 2007, 우리나라 비성장형 도시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2), pp.73-94.
-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pp.223-250.
- 이현승, 1999, 실직자 가족의 복지욕구와 가족정책, 『사회복

- 지정책, 9, pp.155-175.
- 이현송, 2004,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욕구 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24(1), pp.231-351.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한 · 김정오 · 권석만, 1994, 청소년의 tkfam1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pp.61-94.
- 충북개발연구원, 2010,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 한준 · 강석훈 · 김석호 · 서은국 · 홍종호 · 이희길 · 심수진,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 서울: 한국사회학회.
- 홍석동, 2016, 소득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llas, D., 2013, What makes a 'happy city?', 『Cities』, 32, pp.39-50.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pp.1359-1386.
-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pp.648-659.
- Delken, E., 2008, Happiness in shrinking cities in German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pp.213-218.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Diener E. D.,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276-302.
- Frey, B. S.,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MIT Press Book, 1.
- Glaeser, E. L. & Goryko, J., 2005, Urban decline and durable hous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laeser, E. L., & Redlick, C., 2009, Social capital and urban growth,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 Glaeser, E. L., Gottlieb, J. D., & Ziv, O., 2014, Unhappy cit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ollander, J. B., 2011, Can a city successfully shrink? Evidence from survey data on neighborhood quality, 『Urban Affairs Review』, 47(1), pp.129-141.
- Likert, R., 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 Lucas, R. E., 2013, Life satisfaction of US counties predicts population growth,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pp.383-388.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pp.1815-1831.
- Oswald, A. J., & Wu, S., 2010, objective confirmation of subjective measures of human well-being: Evidence from the USA, 『Science』, 327(5965), pp.576-579.

게재신청 2019.06.05.

심사일자 2019.06.27.

게재확정 2019.06.28.

주저자: 권오규, 공동저자: 강은택, 교신저자: 마강래